

2007 S/S 메가 트렌드와 뷰티 트렌드

문 소 원

인터패션플래닝 트렌드 기획팀장

패션과 뷰티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도 드물다. 오랜 기간의 투자와 연구를 거쳐 몇 년 후에나 결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려면 빠른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패션의 경우 6개월의 시즌 사이클을 기본으로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도 월별 기획, 특별 기획으로 세분화되며 심지어는 주별 기획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뷰티 산업도 다르지 않다. 피부 케어와 헤어 관리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뷰티 제품의 생산과 기획 기간을 더욱 앞당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향후 트렌드의 방향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체적인 흐름, 즉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가오는 2007년도 봄/여름을 위한 메가 트렌드의 흐름과 그에 따른 뷰티 트렌드를 설명하고자 한다.

2007년 봄/여름에 유행할 트렌드는 무엇일까?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는 정신적 웰빙과 개인의 추억을 들 수 있다. 인터넷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휴식과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더불어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사회 문화 전반에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증가함에 따라, 창의성이 돋보이는 독특한 제품이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선호가 새로운 소비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주요 경향을 바탕으로 네 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번째 메가 트렌드는 뉴 미니멀리즘과 미래적

인 성향이 결합한 '센슈얼 심플리시티'(Sensual Simplicity)이다. 그 동안 좋은 음식 섭취와 운동을 통한 육체적 웰빙이 각광을 받아왔으며, 이어서 환경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로하스(LOHAS)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식적 웰빙이라는 차세대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의 경우 요란하고 복잡한 것 보다는 단순하고 세련된 미니멀 디자인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다. 나무나 돌처럼 자연적이고 편안한 요소를 디자인에 사용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감성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추가하기도 한다.

패션에서는 새로운 볼륨과 프로포션을 강조하는 뉴 미니멀리즘이 최근 들어 더욱 깔끔하고 절제된 라인으로 진화하였는데,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질 샌더와 보테가 베네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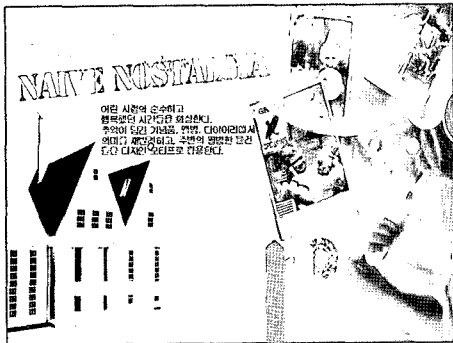


첫번째 메가 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는 뷰티 트렌드로는, 투명감이 느껴지는 깨끗한 피부 표현이 가장 중요하며, 은은한 실버 터치를 이용하여 피부

에 약간의 광택감을 추가하는 방법도 주목할 만하다. 색조 화장은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한 듯 안한 듯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헤어는 깔끔하게 빗어 넘기거나 하나로 묶은 스타일로 미니멀하게 연출한다.



두번째 메가 트렌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나이브 노스텔지아'(Naive Nostalgia)이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과거의 향수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나타난다. 추억이 담긴 기념품, 앨범, 다이어리에서 의미를 재발견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주변의 평범한 물건을 디자인 모티프로 활용한다.



그 동안의 빅토리안이나 고딕 스타일의 과장된 프릴이나 과도한 장식에 싫증을 느낀 소비자들을 위해 소박하고 소녀스러운 스타일이 등장한다. 안나 수이나 클로에, 켈빈 클라인의 06 S/S 컬렉션에서 보듯, 인형의 옷이나 파자마 원피스를 연상시키는 소녀 같은 스타일이 패션에 등장하였고, 컬러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파스텔 톤과 에덴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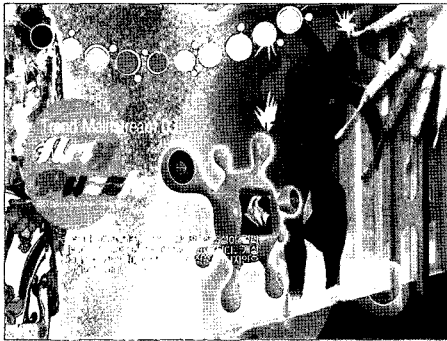
산 같은 내추럴 그린 컬러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연출한다.

두번째 메가 트렌드에 적합한 뷰티 트렌드로는 사랑스러운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굵은 웨이브 헤어나 대충 손으로 땀은 듯한 헤어스타일이 제안되며, 샤넬 오프 꾸뛰르 컬렉션처럼 [그림 참조] 들꽃을 연상시키는 헤어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소녀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 방법은 볼터치를 강조하는 것인데, 광대뼈에서 앞으로 볼터치를 연장하여 발그레 달아오른 소녀의 얼굴을 표현한다.



세번째 메가 트렌드는 순수 예술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아티 퍼즐'(Arty Puzzle)이다. 최근 마르니, 에트로, 도나 카란 등의 컬렉션에서는 몬드리안이나 세잔느, 마티스의 순수 예술 작품이 응용되었으며, 인테리어에서도 오래된 가구를 일부러 태워서 재가공하거나 접시를 깨서 샹들리에를 만드는 등 예술적으로 표현한 제품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분해, 해체, 파괴, 재조합과 같은 창의적인 시도가 이제는 예술 작품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상상력은 컬러나 빛, 패턴과 결합하여 독특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나만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과 잘 맞아 떨어져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메가 트렌드에 맞는 뷰티 트렌드로는 '개성적인 표현' 꿈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대담한 컬러를 활용한 색조 화장이 선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아이셰도우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한다. 헤어 스타일도



유행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이 등장할 전망이다. 레이어를 많이 주고 볼륨을 살린 스타일이나, 앞머리를 양 옆까지 깊게 잘라 볼륨을 준 빅뱅 스타일이 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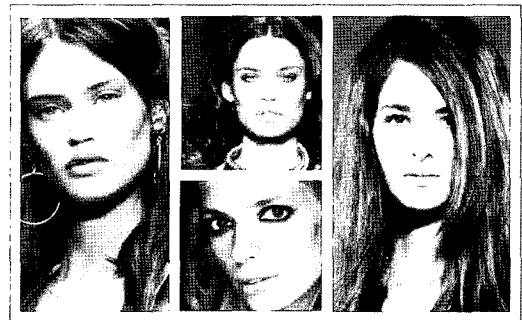


나 핑크 컬러를 사용하여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메가 트렌드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미지의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트레이스 오브 저니’(Trace of Journey)이다. 태양이 작렬하는 남쪽 지역을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어 다양한 이국 문화를 경험한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통해, 소박한 일상에서부터 정교하고 화려한 전통유물에 이르기까지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문화를 디자인의 영감으로 사용하게 된다.

패션에서는 활동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리포터 룩과 세련된 리조트 사파리 룩이 등장할 전망이다. 뷰티 트렌드로는 관능미를 살린 이국적인 스타일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햇볕에 그을린 듯한 까무잡잡한 피부톤으로 건강미를 살리고, 아이라이너나 마스크라로 깊고 또렷한 눈매를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 때 눈과 함께 입술 표현이 중요한데,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한 와인 빛이



이상에서 2007년 봄/여름을 위한 메가 트렌드와 뷰티 트렌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향을 잘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트렌드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중에서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나 소비자의 욕구와 잘 맞아 떨어져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문화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능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늘 열린 마음을 갖고 가능한 많은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매 시즌 유명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눈여겨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스타일 뿐 아니라, 컬러, 소재, 실루엣,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의 종합 예술이라

고 할 수 있는 패션쇼를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트렌드의 중심에 점점 다가서 있음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스크랩하거나, 나만의 디자인 수첩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된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트렌드 흐름을 읽어내는 커다란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Mary McFadden Couture, NY, 디자이너
Banu, NY, 디자이너
Cross Country Fashion, NY, 디자이너
(현)인터패션플래닝 트렌드 기획 팀장
연락처 : 02-559-5423,
HP : 011-9257-8109
E-mail : swmoon718@ifp.co.kr
Site : www.ifp.co.kr
